

급식비 횡령 파면 교장 복직 제동

도 교육청, 절차등 확인결과 문제점 발견 반려 통보

수역원 가량의 학교 급식비를 횡령해 법정 선고형을 받고 파면됐던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3년만에 다시 복직하려는 상황을 전북교육청이 제동을 걸었다.

전북교육청은 9일 익산의 한 사립학교 A교장의 재임용과 관련한 절차 등을 확인한 결과 임용 저러상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반려를 통보했다.

교육청이 학교 재단측이 A교장의 재임용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만 거쳐 통보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A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여가까운 기간 동안 학교 급식비를 4억 6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되고 법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학교 재단측은 법률상에 명시된 임용 제한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A교장을 즉시 복직시켰다.

수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A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 기자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결정 하루 전인 9일 오후 정읍시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의 환수를 거부하는 농민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촉구하며 농민기를 부르고 있다.

여성농업인문화·학습기회제공

전주시, 31일까지 생생카드 추가 신청 접수

전주시가 문화·여가생활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문화·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2017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 등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문화 및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 만 3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농촌지역에 젊은 층 유입시키고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등을 배려하기 위해 만 2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비록 만 20세 이상에서 만 24세(1997.1.1.~1993.12.31.출생) 사이일 지라도 결혼을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며, 카드를 이용해 스포츠·레저용품, 의료기기 및 용품점, 수영장, 요가, 영화관, 공연장,

서점, 화원, 펜션(민박), 미용실, 화장품, 안경점 등 27개 업종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과 만 20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다. 단, 농촌에서 영농을 하지만 농촌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전업직 직업을 가진 농업인, 지난해 1월 이후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세대합산 농지소유면적이 5ha 초과하는 농업인, 타 법령 유사 바우처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인의 거주 지역, 전업농 및 타 법령 유사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후, 오는 4월 17일부터 생생카드를 추가 발급할 계획이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서 고단한 영농으로 힘든 여성농업인이 삶의 여유를 찾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전주농협, 통합 먹거리체계 구축 나서

재편방안·전주푸드 포괄적 전략·공동 실행 방안 찾기

전주시가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통합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농민과 시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전주푸드(전주 로컬푸드)를 조기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 각자 별도의 사업모델을 추진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너지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이를 위한 9일(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전주푸드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시와 농협이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공동 의뢰해 상호협력에 기초한 운영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

다. 대표적으로, 이번 용역에는 전주시 통합적 먹거리체계 재편을 위해 적정수의 직매장 수와 직매장 개설 수요 및 입지분석,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운영조직 및 운영체계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시와 전주농협이 이차려 상생협력방안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은 2월 말 현재 전주시가 출연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전주푸드 직매장 3개소와 레스토랑 1개소, 공공급식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전주농협도 2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영하면서 과다 경쟁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 기관은 농민과 시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전주푸드 활성화에 공감하고 오는 2021년까지 5년 단위 계획으로 적정수의 직매장 수를

포함한 전주시 통합적 먹거리체계 재편방안과 전주푸드의 포괄적 전략 및 공동실행방안을 찾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용역 수행과정에서 곧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적 합의 도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에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생산자인 농민단체, 소비자인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시와 전주농협은 오는 6월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 연구결과와 현실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다른 도시들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전국 최초의 대도시먹거리전략을 추진 중인 전주시의 사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며 “전주시와 전주농협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전주푸드플랜 정착의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완주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대형화재 발생·긴급 진화

완주군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9일 오후 1시 44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는 불이나 공장을 모두 뒤덮었으며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불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와 샌드위치 패널이 많은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화재의 이른 발견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원인 조사에 나섰다. /김민근 기자

불에 탄 차량 안에 시신 발견

정읍시 신월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불에 탄 차량 안에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발견된 시신은 30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민근 기자

40대 내연남 핸드폰과 지갑 훔친 20대 검거

40대 내연남의 핸드폰과 지갑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덕진경찰서는 9일 내연남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내연남의 자택에서 갈

이 술을 마시다 내연남의 휴대전화와 현금 30만원 가량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새 휴대전화가 탐났고 생활비도 부족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속도제한장치 해제 화물차 집중 단속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9일 삼관 TG와 오수휴게소 등을 찾아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화물차를 집중 단속했다.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화물차는 난폭운전이나 과속을 할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고 과속

과 난폭운전을 한 도내 대형 화물차와 버스는 101대로 나타났다.

방홍 9지구대장은 “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속도제한 장치 임의해제는 과속운전과 난폭운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져 해제업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유포자, 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국립승안사당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